

BLACK LOTUS

March, 2016 |



BLACK LOTUS

장-미셸 오토니엘

문의 국제갤러리 (02)3210-9885 www.kukjegallery.com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들의 속성과 그것의 변이과정들에 관심을 가지는 작가 장-미셸 오토니엘의 개인전이 국제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국내에서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의 대표적인 유리조각 설치작품에서 회화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폭넓은 예술세계를 반영하는 신작 10점을 전시한다.

그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진,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존재의 상실과 부재, 그리고 인간이 지나는 상처들을 주제로 다루어 왔다. 그는 주로 유황, 왁스, 인과 같은 독특하고 역설적인 성질을 지닌 재료들을 작품에 활용해 왔으며, 이후 2000년 후반에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보다 추상적이며 공간 내에 역동적인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 거울유리구슬을 주재료로 하는 연작들을 선보였다. 이번 개인전은 작가의 작품세계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하게 탐구되는 '꽃'을 주제로 하며, 나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꽃의 내면적인 의미와 상징을 심화시킨다. 그는 한국에서 연꽃이 상징적으로 지니는 문화적,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많은 영감을 받았다. 그의 작업에서 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꽃의 숨은 의미나 상징은 매력적인 것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전시작품 '검은 연꽃(Black Lotus)'은 프랑스의 낭만주의 시인 보들레르의 '악의 꽃'과 랭보의 '보이지 않는 찬란함'에서 영감을 받아 모순된 단어의 조합에 양가적인 가치를 표현했다. 이는 유리로 주조된 대형 설치작품과 석판화 잉크로 겹겹이 채색한 평면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치작품은 산화 처리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육중한 느낌을 전달한다. 또한 검은색, 보라색 등 어두운 색으로 채색됨으로써 정화, 깨달음, 깨끗함과 같은 연꽃의 본래 가치들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낸다. 설치작품과 함께 전시된 검은 석판화는 서양의 캔버스와 석판화 잉크를 활용하여 먹이 지나는 이미지 너머의 내면적인 부분, 곧 정신적인 측면을 나타내고자 시도한 작품이다. 전시는 오는 3월 27일까지 계속된다.

